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붉은기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7호 [주체 제23199호] 1999년 9월 9일 9면 4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

조선로동당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라선시대표회 진행

조선로동당대표회의 대표자선거를 위한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 라선시 대표회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자들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나가는 시기와 임무를 밝히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함경남도에서 진행된 대표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함경북도에서 진행된 대표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진행된 대표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라선시에서 진행된 대표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대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아들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고 맹목적으로 맹세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완공된다는 소식에
그이께서는 발전건설을 다그쳐
완나에서 나서는 파업들을 제지
하시였다.
로제야의 이따르-파스톤신, 제
소로주제사상연구 및 구원소조와
백두산세도조선전선협회 인내회
동맹투쟁을 위한 《조선-백두산》도
같은 소식을 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유야부흥운동선 선군문화 선강
의를 관행하는 소식을 8월 23
일 2시 10분경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제야의 이따르-파스톤신은 다
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동지께서 봉공국가합성단
과 조선인민군현단, 조선인민군
군단, 해군사령부, 육군사
령부부담을 비롯한 군대에출연하
는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출연자들은 선군의 기치밑에 조
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봉공정신
의 새시대를 펼쳐나가는 위대한
선군정도의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동지께서는
예술인들이 혁명적의정신으로
연출하는 훌륭한 공연을 관행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며 대우
전 5분경의 대우전
발대이기 위한 총출격전을 힘있게
벌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로소통신, 세소로주제사상연구
및 구원소조와 백두산세도조선
전선 협회 인내회 동맹투쟁을
위한 《조선-백두산》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대표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강원도당대표회가 진행되었다. 특기자 신원익 제공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 개막

절세위인을 아버지로 높이 모신 우리 사회의 참모습



유화 《명절의 아침》, 《대동강해맞이》를 비롯한 작품들은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강능수내각부총리, 안동훈문화부장, 판계부본인들, 미술창작가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기남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국가미술전람회를 개막한다고 말했다.

전람회는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 맞이하기 위하여 펼쳐진 총체적인 예술의 신심과 천재성의 응집을 보여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작품들을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사회주의 대가정의 아버지로 높이 모신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돕고 이끄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계속 꽃피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고 도우면서 화목한 대가정을 이루고 다같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누리려는것이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다.》

평양시 선교구역 선영1동에는 영예군인 박재군동무가 살고있다. 그는 이 땅의 한 영예군인인 자기를 위하여 온갖 지성을 다 기울이고있는 대외문화협력위원회 일군인 문제철동무와 정공업성 부원 독고순철동무, 시안의 인민보안원들과 선교구역안의 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담은 장문의 편지를 본사편지함으로 보내왔다.

박재군동무가 문제철동무를 처음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전이었다. 군사인무수행 중 뜻하지 않게 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받고있던 박재군동무를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은 문제철동무였다.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여러가지 영양식품들을 가지고 찾아와 절대로 신심을 잃어서는 안된다고, 꼭 다시 일어나 대오에서 서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고 힘과 고무를 인겨주는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향기를 페루로 느끼고 있었다.

박재군동무가 제대된 후에도 문제철동무는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그의 생활을 따듯이 돌봐주었다. 그는 일군으로서 바쁜 시간을 보내는 속에서도 영예군인의 생활에 자기마찬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다신한 사랑을 기울였다. 박재군동무가 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괴롭히다가 한달고무도 해주고 갖가지 기념품들도 안겨주었다. 영예군인의 가정에 귀여운 자식이 태어나 백날, 칠날을 맞을 때에도 남편처럼 찾아와 축하해주고 새로운 도사들과 수많은 생활필수품들을 안고 매달리 찾아와 영예군인과 가족들의 건강과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는 문제철동무가 박재군동무와 가족들은 아버지처럼 따르고있다.

조국을 위하여 정춘을 바친 한 영예군인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사람은 비단 문제철동무만이 아니다.

박재군동무가 치료를 위하여 먼길을 떠날 때면 온갖 편의를 다 보강해주고 도중식사까지 마련해주며 성의를 다하는 선교구역인민보안서 일군들과 보안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감동깊은것인가.

박재군동무가 새 가정을 이룬다는것을 알고는 기념품을 안고 찾아와 축하해주고 꽃을 명절날이면 가족들까지 데리고 찾아와 불려주며 영예군인가정에 향만과 희열을 더해준 고마운 사람들.

영예군인가정의 생활에서 자기마찬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매일이 찾아와 돌봐주는 평양시인민보안국의 보안원들을 비롯한 인민의 복무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박재군동무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고 하였다. 박재군동무와 가족들에게 친철육성의 정을 다 바치고있는 정공업성 부원 독고순철동무와 선교구역의 여러 단원들에서 일하는 최장경, 박동숙, 리금옥, 김중복동무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진정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한가로운 우리 사회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끼게 하였다.

단발머리치니서절부터 오늘까지 수십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온 김만유병원 종합실용심검사와 의사 윤선희동무의 소행도 온 나라가 하나같이 자랑하는 우리 조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미풍이다.

사랑의 해빛, 인민의 해빛, 로 가득한 내 조국땅에는 단 한집의 그늘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윤선희동무가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10여년세월이 흘러왔다.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아이를 위하여 자기의 피까지 주고주고 눈이 멀어 버린 어머니의 모습은 곧 자기들이 안겨주는 조국의 품으로 안겨와 친절한 자식들도 눈물을 적시곤 하였다.

그에게 힘을 더해주고 의지를 가득하게 해준다는 수많은 헌혈자들의 뜨거운 진정이었다. 앓는 아이는 없는가, 떨리는 떨이지지 않았는가, 여름이면 여름이어서, 겨울이면 겨울이어서 생활에서 걱정이 없었는가, 심히 알아보고 보살펴주곤 하는 김만유병원과 평양1백화점, 광명구역당위원회 비롯한 많은 단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스스로 이 가정의 친부모, 친형제가 되어 아낌없는 지성을 바쳐왔다. 그들 한명만이라도 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었다. 목한 대가정, 고마운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모습에기에 윤선희

【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가 3일 평양체육관에서 개막되었다.

전람회장은 백전백승의 기치인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문예대기마다에 아로새겨진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혁명업적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들을 보여주는 조선화, 유화, 조각, 보석화, 공예, 수예, 서예를 비롯한 400여점의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조각 《당창건을 선포하는 위대한 수령님》, 조선화 《황천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며》, 《세벽》을 비롯한 작품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업적과 고매한 인민적품모가 형상되었다.

탁월한 령도력으로 우리 당을 위대한 혁명의 참모부, 참다운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키워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과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보여주는 조선화

한 품모를 보여주는 조선화 《다신한 사랑은 이른아침에도》, 《새 조선의 주인이 되라 하시며》, 유화 《포사격훈련을 보아주시며》, 《병사들의 친어버리》 등도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이 땅에서 어머니수령님의 넉넉이 꽃핀 주체의 강성대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며 폭풍처럼 내달리는 군대와 인민의 투쟁모습과 당의 품속에서 사회주의만복을 누리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반영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충정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국가미술전람회를 개막한다고 말했다.

전람회는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 맞이하기 위하여 펼쳐진 총체적인 예술의 신심과 천재성의 응집을 보여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작품들을 돌아보았다.

청진시 선암구역 포항동 51인민반에서 사는 김일순동무의 가정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원군집이다.

조국의 안녕도, 가정의 행복도 총대에 의하여 굳건히 지켜 전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긴 김일

원군집에서 행복과 보람을 찾으며

순동무에게 그는 병사들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모든것을 다 바쳐고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그 날에도 그는 이차하게 달라붙

어 집짐승마리수를 더욱 늘려 나갔다.

병사들을 친자처럼 여기는 김일순동무의 그 마음은 그대로 가풍으로 이어져 두 며느리와

어제날 병사였던 외동딸도 원군집에 진정되어 바쳐가고있다.

하기에 초소의 병사들은 원군집에 자주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곤 한다.

조국방선은 넘쳐말라고, 본사기자

마음속군복을 벗지 않고

평양시인민위원회 국장 김명현동무의 가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과 같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그런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지닌 인민은 없다.》

평양시인민위원회 국장 김명현동무의 집에는 두벌의 군복이 소중한 간수되어있다. 그것은 제대군관들이 김명현동무와 아내 박근숙동무의 것이다. 그 군복에는 성스러운 군사복부의 날들을 한생의 가장 보람찬과 공적들은 시절로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그들의 마음과 함께 영예히 마음속에 군복을 입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군혁명명도를 앞장서서 받들어가려는 그들의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다.

제대후에도 김명현동무는 늘 마음속에 군복을 입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병사라는

자각으로 심장을 불태웠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선길에 마음도 뜻도 걸음도 따라세우며 그는 지난 기간 부대의 군인들을 물심양면으로 성심성의껏 원호하였다. 그는 한부대에서 군사복부를 같이한 안해와 함께 해마다 건군절과 진승절을 비롯한 뜻깊은 계기마다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부대군인들에게 보내주곤 하였다.

그날 밤 부모들의 뒤를 이어 조국보위초소를 달려간간 아들 김명현동무가 이었던 군관으로 자라난것은 원군집을 줄기차게 이어가는 그들이 되고 보람으로 되었다.

그날밤에는 뜨거운 격정속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하던 잊지 못할 5년전 4월의 그날도 새겨져있다. 그날 신문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신 혁명활동보도가 실렸는데 장군님께서

찾으신 그 부대가 바로 그들이 복무한 부대였었다.

그날밤 초소의 낮익은 오솔길이며 정다운 전우들의 모습을 그려보는 그들부부의 가슴속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원군집을 더욱 힘차게 걸어갈 결심이 굳어져 있었다.

그때부터 김명현동무와 박근숙동무는 원군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갔다. 늘 바쁜 출장길을 이어가는 그들이었지만 초소의 병사들에게 한가지 원호물자라도 더 보내주자고 언제나 마음었다.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크나큰 영광을 지닌 김명현동무와 박근숙동무는 그 사랑, 그 믿음에 기어 보답할 심장의 맹세를 담아 마음속으로 힘차게 뛰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복무함!》

본사기자 김호혁

항일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중국특명전권대사 연회

【평양 9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항일전쟁승리 65돐에 즈음하여 류홍재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3일 대사에서 연회를 마쳤다.

연회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무와 박의춘부부장, 조중진선협회 중앙위원장 위원장인 최장식보전장, 김성남, 박재경, 한철, 전영진, 항일혁명투사들, 판계부본인들이 초대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류홍재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65년전 중국인민은 불굴의 정신과 끝까지 싸우는 의지로 일본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다고 하면서 그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의 혁명가들은 중국동지들과 함께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빛나는 서사를 써오라고 새겨주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중국인민과 어깨걸고 항일전쟁을 벌리던 조선의 항일혁명투사들과 조선인민이

제 최고로 되는 사의와 숭고한 정신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투쟁적인 조조전선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을 비공식방문하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데 국제적과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경 및 지역문제들에 대하여 깊이있는 의의교류를 하시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중조 친선협조관계를 굳히기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피로써 맺어진 두터운 친선을 계속하여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복리를 가져다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수호하는데 적극적인 기여를 할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다음으로 박의춘의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의 로새대 혁명가들과 함께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중친선의 빛나는 력사와 훌륭한 전통을 마련하신데 대하여 강조했다.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또다시 진행하신 력사적인 중국방문은 조중친선을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복잡한 정세와 풍파에서도 끄떡없는 관계로 되었고 내외에 파시한 계기로 되었다고 말했다.

존경하는 호모동지들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은 과학적발전관을 실천하며 초회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친선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중국동지들과 함께 계속 노력할것이라고 말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존경하는 호모동지들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는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잔을 들었다.

독자의 편지

군사인무수행중 뜻밖의 일로 부상당한 제가 제대되어 집에 돌아오지도 한해가 지나갔습니다. 이 기간은 위대한 장군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내 조국의 참모습을 심장으로 체험한 나날이었습니니다.

건군절을 며칠 앞둔 어느날 저녁 저의 집으로는 낯모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진행한 경속공연무대에서 앓 못 보는 저의 손공연무대에 감동을 금할

고마운 제도에서

수 없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지성품을 받아들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후에야 저는 그들이 바로 중명중학교 청년동맹일군인 주정봉동무와 1학년에서 공부하고있는 장공수학생 그리고 그의 부모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명절날은 물론 휴식일에도 자주 저의 집에 찾아와 닭곰을 비롯한 반박달도 안겨주면서 혁명의 뜻을 활짝 퍼두도록 힘과 용기를 주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삽니다

정말 고마운 동지들과 이웃들의 사랑을 느낄 때마다 저는 서로 돕고 이끄는 인간사랑의 화원을 꽃피워 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곱이 젖어옵니다.

저는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경제선동의 복수리를 높이 올림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에 적은 힘이 나마 이바지하겠습니다.

신흥군 145인민반 김성철



위대한 장군님 펼쳐주신 선군의 푸른 하늘아래 우리 조국은 끝없이 강성변영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종훈 특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영상이 어려와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었다.

올해에만도 우리 도를 여러차례 찾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번에도 또다시 함경남도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들의 자기마찬 향기를 높이 평가하여주시면서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생활향진을 더 도모해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안겨주시었다.

그날의 말씀을 되새겨볼 때마다 현지지도의 바쁘신 시간을 내시어 함흥에서 지방사회공연을 하고있는 명작 《산울림》을 또다시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의도가 가슴을 파고든다.

오늘 우리 장군님께서 끝없이 이어가시는 강행군

길마다에서는 창조와 비약의 산울림이 터져나오고있으며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도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이고있다.

격동하는 오늘의 대고조 시대는 우리들이 《산울림》의 주인공들처럼 살며 투쟁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산울림》의 주인공

들처럼 불리는 애국의 마음과 함께 계속혁신, 계속전진해 나갈 때 우리 생활은 보다 아름다워질것이며 우리 조국은 더욱 부강번영할것이다.

우리들은 경희국 《산울림》의 주인공들처럼 순간의 자만도 없이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강성대국의 휘황찬란한 매일을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할것을 우리의 보람한 투쟁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빛내어나가겠다.

정권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용운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성속에 선군시대의 명작으로 훌륭히 완성된 경희국 《산울림》의 주인공들이 지나야 할 참된 일본제에 대하여 감동깊이 보여주었다.

언제나 대중속에 들어가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대중의 힘과 지혜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나가는 리당위원장 락주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달로써가 아니라 이신작의 보범으로 앞장서서 일군을 대충은 존경하고 따르시라면서.

우리라는 부름속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일군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지금 우리 구역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산울림》의 주인공들처럼 힘의 힘으로 한자리를 하고 하나를 만들어도 실지로 덕을 볼수 있는 인민의 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우리 일군들은 군중의

높은 기세에 맞게 조직적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으로써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갔다.

특히 구역안의 모든 잠재력과 예비를 총동원하여 인민생활에 결실히 필요한 명시되고 쓸모있는 인민소비품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 인민들에 대한 상업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갔다.

합흥시 회산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임경재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리헤인의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시대의 기념비적격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경희국 《산울림》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이 최우명으로 삼아야 할 삶과 투쟁의 진리를 새겨주는 교과서와도 같은 작품이다.

경희국 《산울림》이야말로 오늘 강성대국건설대전에 떨쳐나선 우리 일군들이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를 깨우쳐주는 삶과 투쟁의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훌륭한 문화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낸다.》

리성철 전권대사 대외부장 리상을 심장에 새긴 대고조 시대의 선구자로 앞장서 나갔다.

우리들은 강성대국의 산울림으로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일으키려는 시대의 선구자로 앞장서 나갔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앞서 나서지키나 하는 사상이 아니라 높은 목표를 향하여 앞장서서 내달리는 기수가 될것을 바라

달리도록 우리의 가슴속에 힘차게 메아리치고있다.

더 좋은 매일을 위하여 창조 좋은 매일을 바쳐가는 주인공의 사상정신세계와 넓은 사상에 사로잡혀 수주에 빠져 매도되는 판위원장의 형상은 도란의 농염부문을 책임진 일군인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다.

오늘의 들끓는 현실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앞서 나서지키나 하는 사상이 아니라 높은 목표를 향하여 앞장서서 내달리는 기수가 될것을 바라

교향향을 가꾸는 뿌리가 되겠다

경희국 《산울림》 공연은 우리 어류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었다.

천리대고조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아래 인민의 락원으로서 번성되던 내 고향 어류의 전편의 력사가 생동한 화풍으로 어려와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오늘의 공연을 보니 그날의 석연이네들이 처했던 창조와 혁신의 메아리가 우리를 부르는데것 같다. 세월은 흘러갔다. 그러나 이 땅을 지켜신 주인들의

가꾸는 뿌리가 되겠다

보람찬 삶의 위치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었다.

나는 온 나라를 뒤흔든 《산울림》의 주인공들을 낳은 교향에서 나서자란 세대이다.

생애의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지금 범바위 비를 개간하여 알곡 100만(중산에 이바지한 전세대밭처럼 천리마시대 에 울린 산울림이 선군시대의 산울림으로 계속 메아리치게 할 결의로

전환을

높은 기세에 맞게 조직적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짜고들으로써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갔다.

특히 구역안의 모든 잠재력과 예비를 총동원하여 인민생활에 결실히 필요한 명시되고 쓸모있는 인민소비품들을 많이 생산공급하여 인민들에 대한 상업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인민의 총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갔다.

합흥시 회산구역인민위원회 위원장 임경재

대고조의

특별한 문화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낸다.》

리성철 전권대사 대외부장 리상을 심장에 새긴 대고조 시대의 선구자로 앞장서 나갔다.

우리들은 강성대국의 산울림으로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일으키려는 시대의 선구자로 앞장서 나갔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앞서 나서지키나 하는 사상이 아니라 높은 목표를 향하여 앞장서서 내달리는 기수가 될것을 바라

선구자의

특별한 문화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낸다.》

리성철 전권대사 대외부장 리상을 심장에 새긴 대고조 시대의 선구자로 앞장서 나갔다.

우리들은 강성대국의 산울림으로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을 일으키려는 시대의 선구자로 앞장서 나갔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앞서 나서지키나 하는 사상이 아니라 높은 목표를 향하여 앞장서서 내달리는 기수가 될것을 바라

선군태양의 빛발아래 펼쳐지는 청년들의 화원

더욱 로골화되는 북침기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청년중시 정치가 펼쳐지는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청년들의 자랑스런 위훈이 빛나고있다. 조국보위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앞장에서 청년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치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 위대한 선군태양의 품속에서 가장 값있는 청춘을 꽃피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남뉘겨베를은 한없이 부러움과 동경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다.

《오늘 이북에서는 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의 앞장에서 나가고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한몸바치는 것을 더없는 미덕으로 여기고 있다. 정말 이 땅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세상에 김일영도자처럼 청년들을 력사와 시대앞에 높이 세워주시고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그런 지도자, 그런 결실한 위인은 없다.》

《오늘날 세인의 경관을 자아내고있는 이북특유의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김일영도자님의 위대한 청년중시 정치의 덕을 따서 생각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 하례할 때는 믿음과 사랑을 들려주시는 김일영도자님이시야말로 김일영도자님에 가장 어울리고 숭배하고 슬기로운 인간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정치가이다.》

이 목소리들마다에는 청년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선군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시며 청년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영장군님에 대한 남뉘겨베들의 흠모와 칭송의 마음이 그대로 어려있다. 언젠가 남조선의 《자유민보》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리었다.

《김일영장군님께서는 불타는 정의감과 열정의 심장을 지닌 청년대중을 사랑해왔다. 진화의 그날 조국을 위해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 인연애와 같은이들을 국가영웅으로 내세우고있으며 이들 영웅애에는 오늘날의 김일영, 김광명, 김광호 등이나 수평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과 더불어 영웅적의용정신 등 혁명적 건설에서 혁명군대가 지켜야 할 자세를 일컫는 혁명적 군인정신의 모범으로 되고있고 한다. 이북의 군인들속에서 혁명적 군인정신이 꽃피어나는 것은 바로 김일영장군님이라는 뜨거운 군인사랑의 바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날 선군정치는 곧 김일영장군님이라는 사랑의 정치이며 믿음의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북의 총포탄대오는 김일영장군님이라는 사랑과 믿음의 핵으로 하고있다. 김일영장군님께서는 령도하는 사랑과 사랑을 받는 사랑이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이렇듯 핵폭탄보다도 강력한 이복사회의 일심단결을 낳고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나라와 민족의 미래이며 조국의 장래명명과 민족의

전도는 청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위대한 김일영장군님께서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귀중한 꽃으로 내세워주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베푸시며 그들을 자랑찬 위훈의 창조자로,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셨다.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며 온 나라에 청년중시 기풍이 차넘치게 하신분도 경애하는 장군님이다. 그들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개인의 안락과 행복이 아니라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시나가는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장마다에 달려나가는 기적과 위훈을 새겨가며 나라와 민족의 역설 기둥으로 자라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에서는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보배로,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 조국의 미래로 내세워주시고 정력적인 영웅으로 청년운동을 고무하며 키워주셨다. 하여 이북의 청년들은 주제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역으로 존귀한 자라나고있다. 《이북청년들이 행복할 삶을 누리는 것은 바로 김일영장군님의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의 필연적결과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로부터 미래를 가누는 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대사로 되어왔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바로 김일영장군님의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의 필연적결과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북청년들이 행복할 삶을 누리는 것은 바로 김일영장군님의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의 필연적결과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로부터 미래를 가누는 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대사로 되어왔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바로 김일영장군님의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의 필연적결과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의 정치대가이다.》

정치학교수 강남은 자기의 글에서 《이북의 청년들은 선군시대의 대가님비적창조물들이자기의 이름을 땀땀 남기고 그 영웅적위훈을 길이 빛내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청년영웅도로건설에서 청년들은 비위산을 들어서고 로반을 땀으면서 힘줄을 모르고 웃으며 일하였다. 그것은 기계의 힘이 아니라 사상의 힘이었다. 정적 김일영장군님의 청년중시정치는 청년들이 빛나는 위훈을 떨치게 하는 위대한 정치이다.》

《국청년회 회장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영도자님께서는 청년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존경하신다. 그분께서는 청년들을 위하여서라면 그 무엇이 아낌없이 들려주시며 그들을 나라의 영군으로, 미래의 주인공으로 훌륭히 키워주셨다. 하여 이북의 청년들은 주제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역으로 존귀한 자라나고있다. 《이북청년들이 행복할 삶을 누리는 것은 바로 김일영장군님의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의 필연적결과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로부터 미래를 가누는 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대사로 되어왔다. 지금 여러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은 바로 김일영장군님의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의 필연적결과이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라가 서고 민족이 좋아하는 법이다. 이북청년들의 생애는 열정과 자진성은 흠모는 스승을 만났기때문이다. 김일영장군님의 위대한 청년중시정치가 있고 그들의 정치를 제일선에서 받드는 이북청년들이 있어 21세기는 김일영시대로 찬연히 빛났었다.》라고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다.

서울의 한 대학생은 《우리 청년들이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따라야 할분은 오직 김일영도자님뿐입니다.》라고 하였으며 장군님에 대한 정치는 《우리 모두 김일영장군님을 청년운동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그분의 령도 따라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제주도의 청년학생들도 북돋아주는 우리라며 《청년들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태양이신 김일영장군님 계시어 민족의 래일은 창창하다.》 《김일영장군님을 믿고 따르는 뜻입니다. 21세기의 태양 김일영장군 만세!》라고 격조높이 외쳤다.

절세의 위인을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고있는 우리 청년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피끓는 열정을 장그려 바칠것이며 그 겉에서 조선청년들의 영예는 더욱더 값있는 빛났었다.

피뢰군부가 《천안》호사건에 따른 《군사적 대응조치》라는 간판밑에 미국과 함께 조선에서 연합대담수합훈련을 실시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9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에는 미 7함대소속 이지스구축함을 비롯한 수많은 미제침략군과 피뢰군부력이 참가하게 된다.

피뢰들은 이번 불장난에서 《대담수합훈련의 전략과 기술, 절차를 익히게 될것》이라고 떠벌이었다. 호전광들이 운운하는 대담수합훈련은 곧 뒤집어놓는 북침전쟁공격작전이다. 그들은 이번의 연합대담수합훈련을 통해 해상에서의 북침전쟁준비와 전투수련, 행동절차를 편만하고 완성할것을 꾀하고있다.

피뢰들이 이번 연합대담수합훈련의 위험성을 가리워보려고 판에 박힌 수법대로 그 무슨 《북의 도발연계》나, 《분명한 신호》니 뭐니 하며 내어놓을 오도하고있지만 그것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이번 연합대담수합훈련은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판관으로 벌어진 남조선미국연합해상훈련과 피뢰군단독의 대담수합훈련에 이어 강행된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연장으로서 침투침미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기습공격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핵시행전이다. 피뢰들이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화약내가 채 가시기도 전에 대규모북침전쟁준비를 또다시 벌려려 하는것은 우리에게 대한 참수수 없는 도전이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정세를 전쟁정도로 몰아가는 극히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그것을 불의에 북침전쟁전개로 이행하려는것이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이 항시적으로 추구하는 불피적의사이다. 호전광들이 요즘 입만 벌리면 《항상 긴장하게 대비》하라니, 《훈련을 엄격히 하라.》니, 《연습에 철저히 힘하라.》니 뭐니 하는 호전적인 불피명을 연이어 내리고있는것은 다름아닌 그 흥계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제촉이다.

실제로 피뢰들이 미국과 함께 조선서해에서 벌려려 하는 합동군사연습은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실정으로 넘어갈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피뢰들이 《천안》호사건의 책임을 한사코 우리에게 전가시키려하면서 《보복》이니, 《응징》이니, 《선제타격》이니 하는 호전적폭언을 함부로 제치고있는 조건에서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에 의해 조성된 전쟁 위기사태는 그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것이 없다. 지금 내어놓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와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하지만 남조선집권세력은 여전히 대결을 추구하며 무모하게 북침의 불모지를 계속 휘두르고 있다. 이미 조선동서해와 남조선전역에서 최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을 연달아 벌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상태에 몰아넣고도 상처치 않아 서해를 무대로 또다시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려 하는 남조선피뢰들이야말로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호전광무리이다. 리승을 잃은 피뢰들의 무분별한 망상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해치고있다.

외세의 핵전쟁마차를 끌며 북침전쟁의 불침을 터쳐보려고 기회를 부리는 남조선호전세력을 그대로 두어서는 민족이 발전권을 잃을 것이고 전쟁의 제난도 면할수 없다.

피뢰호전광들이 북침을 꾀하며 몰염병몰염병 하는것은 설을 지고 불을 피우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망동이다. 나라와 민족앞에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죄악으로 하여 보수세당은 절대로 무사할수 없다.

다시금 경고보내고 남조선당국은 대세의 흐름을 따라보고 외세의 작당하여 벌려려 하는 파란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당장 걸어치워야 한다. 그러지 않을 때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엄청난 후과에 대하여 집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통일인사에

남조선의 민중항쟁을 지원하기 위하여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당국이 상투적인 공인, 평전리만을 고집하며 그의 의로운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탄압을 가하고있다고 같은 규탄하였다.

《청년들에게 하례할 때는 믿음과 사랑을 들려주시는 김일영도자님이시야말로 김일영도자님에 가장 어울리고 숭배하고 슬기로운 인간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정치가이다.》

이 목소리들마다에는 청년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선군시대의

대한 탄압의 부당성을 폭로

6. 15를 살피고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당국이 상투적인 공인, 평전리만을 고집하며 그의 의로운 활동을 범죄로 규정하고 탄압을 가하고있다고 같은 규탄하였다.

《청년들에게 하례할 때는 믿음과 사랑을 들려주시는 김일영도자님이시야말로 김일영도자님에 가장 어울리고 숭배하고 슬기로운 인간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정치가이다.》

이 목소리들마다에는 청년들을 한몸에 안으시고 선군시대의

일본의 침략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조국통일범민련합(범민련) 남측본부가 8월 29일 《일본침략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일제가 남강도적인 《한일합병조약》을 남조하여 공포한 때로부터 100년이 된데 대해 언급하였다.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 일제가 남강도적인 《을사5조약》, 《정미7조약》 등으로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죄악을 뒤얽으며 1910년 8월 22일 친일 미국노 리완용을 앞세워 《한일합병조약》을 남조하여 29일 그것을 공포하였다고 성명을 밝혔다.

일제가 노예로동을 강요하고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기 위해 강제로 잡아간 조선사람이 무려 840만여명이고 학살사수는 100만명이며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간 조선녀성은 20만명에 달한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일제가 조선사람들을 대상으로 강행한 온갖 범죄행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

일본의 침략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고야말것이다

성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잔인한 식민지통치는 우리 민족에게 끔찍한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웠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온 겨레는 다시는 외세에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깊이 새겨나고 되었다고 문명은 지적하였다.

지금 일본의 우익세력들은 끊임없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합법화해나서고 있으며 독도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고있어 민족들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고 문명은 밝혔다.

문명은 이러한 행동은 장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정부가 과거 식노에범피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고 문제가 을 솔바라 해결할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울려퍼지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선언 발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개각놀음을 비난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이 8월 29일 피뢰당국의 오만한 개각놀음을 비난하는 문평을 발표하였다.

문평은 《국무총리》로 내정된 김태환이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들도 《정부》에 자진사퇴의사를 밝힌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인사청문회과정에서 누구도 무사할수 없는 부정부패행위가 여지없이 드러났기때문이라고 문평은 밝혔다.

문평은 오만한과 독선적인 인사조치로 민중을 우롱하고 사회적혼란을 초래한 책임에서 《정부》는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고 하면서 당장 인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지명된 다른 내정자들도 모두 철회되어야 하며 특히 4대강정비공사를 강행하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장관, 사내매국과 동족대립을 추구하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들도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고 문평은 강조하였다.

범 죄 증거

8월 30일 남조선의 《CBS》방송에 의하면 서울에서 각종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 40만 5 400 여건의 범죄가 발생하였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건수가 그 전체에 비해 19% 증가하였다.

미군의 민간인 학살 만행에 대한 사죄를 요구

남조선의 경성남도지회 시민사회단체들이 8월 30일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강행한 민간인 학살만행에 대해 사죄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미군이 6. 25전

리용할수 있는 권리를 따냈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의 첩수를 요구하고있을뿐이 아니라 기지배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평행으로의 미군기지배배치는 전적으로 북침전쟁도발과 세계제국화정책을 위한 미국의 새로운 침략계획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의 현실이 반영되어야 할단 말인가. 미국이 략탈의 배를 한껏 내미는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의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할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보수세당의 친미사대적기질을 약점으로 움켜쥐어기때문이다.

보수세당은 이미 《전시작전통계전환》연기의 대가로 야부키나스르내국평과 《자유부역협정》의 체결상이라는 큰 《공물》보따리를 상전에게 섬겨버렸다.

그러나 승냥이는 결코 세끼 양 한마리도 만족하지 않는다. 동족을 무력으로 해쳐달라고 빌붙는 하수인의 열변진 추태 앞에서 미국은 더욱 오만해졌고 그래서 기지배배치를 위한 《방위비분담금》의 사용기간을 늘리기로 하였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비단여론이 높아가자 궁지에 몰린 보수세당은 《대가와 관련된 른은》이 없다.》고 변명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통일세》 제안의 반민족적본질

북남사이의 대결과 긴장을 격화시키는 남조선집권자의 《통일세》발안은 온 겨레의 지치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통일세》제안을 반대해적하였다.

지난 8월 15일 리명박연장은 그 무슨 《경축사》라면서 《통일세》발안을 늘어놓았다. 이후 통일부패거리는 《통일세》제안에 대한 《공감대형성》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대며 그것을 《공론화》해보려고 획책하는 한편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꾸미기 위해 《통일세추진단》이라는것을 조작해냈다. 이것은 남조선집권세력이 온 겨레의 강력한 반격을 받고있는 《통일세》제안을 기어코 실행하려고 획책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통일세》제안은 한마디로 령향하가 지지없는 《북침판사태》와 《제세통일》을 전제로 《통일세》를 세움으로 남조선이 자는것으로서 우리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정치적도발이며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의 기치따라 자주통일, 평화회합을 위해 투쟁하고있는 우리 겨레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보수세당은 《통일세》제안은 각국에 친미하여 북남관계를 더욱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가고있다.

《통일세》제안은 반민족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야망의 두 면장 발표이다.

남조선보수세당의 《대북정책》의 본질은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이 아니라 동족을 모해압살하는것이다. 《비핵, 개방, 3 000》이 외세와 야합하여 존엄없는 우리의 체제를 해칠 범죄적책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남조선보수세당은 바로 여기에 따라 집권후부터 오늘까지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일본정부가 과거적악을 반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문평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대변인 이 8월 29일 문평을 발표하여 일본의 군위안부문제와 피뢰역도의 친일매국행위를 규탄하였다.

문평은 《한일합병조약》 남조 100

선군정치는 사회주의조선의 불패의 힘의 원천

여러 나라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남아프리카, 방글라데슈, 우간다, 에티오피아에서 집회, 토론회, 친선 모임,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8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은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선군명도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유구한 력사로 빛나는 조선》, 《조선의 대답》, 《주체사상탑》, 《강성대국의 불보라》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행사장에는 남아프리카공산당, 유루팔랑가주위원회, 남아프리카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령도성취회,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우간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에티오피아 물공사실계 및 각종 기업소와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령도성취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사들, 군중이 참가하였다.

행사들에서는 연설과 발언들이 있었다.

남아프리카공산당 유루팔랑가주위원회 비서인 남아프리카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령도성취회 위원장 보나켈레 마주바는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올해 8월 25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0돐이

경축행사 진행

되는 날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선군정치는 사회주의를 건설해 고수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녕을 지키며 부강번영하는 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가장 필수적인 무기이다.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께서는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도하시었으며 조선에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강력한 군사적억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반공화국살상책동을 짓부시고 조선을 사회주의의보루로 전변시키시었다.

현실은 선군정치만이 나라를 떠맡기지 않고 인민들이 행복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정치방식이라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선군정치의 덕으로 조선인민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한 투쟁에서 세운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

우리는 선군혁명명도 사회주의의보루인 조선을 튼튼히 보위하고 강성대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충심으로 드리는 감사사를 드리며 그이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

방글라데슈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 엠. 감를 후다를 비롯

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일찌기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선군사상과 로선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독창적인 선군정치방식을 내놓으셨으로써 조선이 오늘의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자주권과 존엄을 결연히 수호하고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마련하시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선군명장이신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선군의 보급으로 단호히 물리치며 사회주의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김정일동지의 선군명도밑에 조선의 근대와 인민이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빛내여나가며 주체의 유산대로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리라고 확신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부들이 경예하는 장군님의 초상화와 혁명활동사진을 모시고 투지하였다.

로제 야신론 《웨체란》 제31호는 글에서 경예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조선인민군 군사령관으로서 105명사단에 세기신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이 선출되었으며 세계자주화위수행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의의에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2009년 조선이 자기의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령도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서기장 에스. 엔. 세르왕가는 친선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명도자의 선군혁명명도는 조선이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로 통성변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선군정치로 하여 조선사회의 일심단결은 더욱 강화되고 공화국이 강성대국을 향하여 비약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다. 또한 조선통일의 전향적국면이 열리고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비상이 높아졌다.

참으로 탁월한 령도자로서 위대한 선군정치를 적극 따라배워야 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은 끝없이 통성변영할것이다.

역사적제함을 통하여 총대우에 민족의 운명과 존엄이 있고 나라의 평화와 있다는것을 사 무치게 절감한 조선인민은 선군의 길이아름도 정당하며 총대를 굳게 틀어쥐고나가는 행보가 미개하 있다는 진리를 실감하고 있다

말마주체철학 및 선군정치연구소 인터넷홈페이지는 글에서 선군정치로 사회의 일심단결과 나라의 군력을 굳건히 다지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진시키신 정군에 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였다.

2009년 조선이 자기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겹고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주권침해책동에 대처하여 제2차 지하핵실험을 단행하였을 때 많은 나라와 국제기구들,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냈것은 세계자주화위협의 앞장에 서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권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주었다.

발카리아신문 《폼무니스페레소 덴코》 8월호는 글에서 선군정치는 조선이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고 승리를 떨칠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이라고 하면서 지난 세기말에 경예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고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신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역사적제함을 통하여 총대우에 민족의 운명과 존엄이 있고 나라의 평화와 있다는것을 사 무치게 절감한 조선인민은 선군의 길이아름도 정당하며 총대를 굳게 틀어쥐고나가는 행보가 미개하 있다는 진리를 실감하고 있다

말마주체철학 및 선군정치연구소 인터넷홈페이지는 글에서 선군정치로 사회의 일심단결과 나라의 군력을 굳건히 다지시였으며 우리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진시키신 정군에 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였다.

2009년 조선이 자기의

중국 홍콩잡지 《국제평론》 8월호는 경예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기념글을 편집하였다.

잡지는 글에서 경예하는 장군님께서 선군명도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시였으며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수 있는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신데 대하여, 조국통일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놓으시고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비상이 강화하신데 대하여 소개하였다.

방글라데슈신문 《에코라》 8월 23일부는 《레도자와 군위부대》라는 제목으로 경예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군사령관으로서 105명사단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모든 병사들이 조국과 인민을

각계 인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적도기내, 말타인사들이 8월 23일과 24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적도기내민주당 부총비서 후안 그로 블라라는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올해 8월 25일은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0돐이 되는 날

위해 한복속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영웅들로 지라나도록 이끄신데 대하여 칭송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제105명사단과 같은 군위부대를 수없이 가지 고있는 조선은 앞으로도 선군으로 길이 위용떨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적도기내 라지오 방송은 8월 21일과 22일 4차례에 걸쳐 경예하는 장군님께서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으시어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발책동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신데 대하여 소개하고 적도기내인민은 조선인민이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커다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라고 보도하였다.

한편 에페도르 파란TV 방송은 8월 15일과 16일에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보라》를 방영하였다.

담화 발표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은 지난 50년간 군대와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어 나라의 자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적도기내민주당은 온갖 도전을 이겨내며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군대와 인민의 투

쟁에 전적인 령도성을 보인다.

말타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티르 데우오바니는 담화에서 경예하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0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선군명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화발전과 불멸의 공적을 쌓으신 위대한 명장이시이다. 선군정치는 조선의 근대와 인민이 미국의 대조선압박책동을 단호히 물리치고 사회주의를 수호할수 있게 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조선의 현실은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을지프리덤 가이던》 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하는 모든 침략적인 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김정일동지의 선군명도를 받는 조선의 근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말마주체철학 및 선군정치연구소 서기장 데이비드 쿠스 위에리는 담화에서 조선의 선군정치는 령도자를 중심으로 한 근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정당한 정치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경예하는 장군님의 명도밑에 굳건히 다진 강력한 군력으로 사회주의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본사기자

21세기 사회주의선경도시로 건설되고있는 평양

8월 26일 중국의 신화통신사가 우리 나라 주재 인민일보사 특파기자의 글 《평양: 21세기 사회주의선경도시로 건설되고있다》를 보도하였다.

글은 조선의 수도 평양에 와 본 사람들은 모두 이곳의 깨끗하고 정갈함에 깊은 인상을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이 보도

넓은 도로, 웅장 화려한 건축물, 무성한 수목 등 모든것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다.

평양시의 깨끗하고 정갈함은 조선정부의 환경보호정책과 평양시민들의 높은 수양 그리고 사회제도와 밀접히 련관되어 있다.

출판보도물이 특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를 시작하신 50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부들이 경예하는 장군님의 초상화와 혁명활동사진을 모시고 투지하였다.

로제 야신론 《웨체란》 제31호는 글에서 경예하는 장군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0년전 조선인민군 군사령관으로서 105명사단에 세기신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이 선출되었으며 세계자주화위수행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의의에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자연재해구조사업의

최근년간 중국에서 지진과 큰물파해 등 해에 드문 자연재해가 연이어서 발생하고있고 관련하여 재해지리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국가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전담하고 있다.

자연재해구조사업의 앞장에서

인민해방군 공병부대를 찾아서

그리하여 당과 국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당중앙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전국지진과학사업실업실업진단단위》, 《전국지진재해구조사업실업실업진단단위》, 《지진재해구조사업실업실업진단단위》 등 여러 명예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들의 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난 기간 이곳 공병부대가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이란 장거리포탄 생산 시작

이란에서 8월 29일 새로운 장거리포탄의 계절생산을 시작하였다.

새 포탄은 130mm포탄으로서 4.2km까지의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략실현에 드리운 장막

미합중국본부 의장 말린도 《워윅릭스》와 그에 제공된 정보출처들은 미군병사들과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인민해방군 배이징군구 공병부대를 찾아서

그리하여 당과 국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당중앙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전국지진과학사업실업실업진단단위》, 《전국지진재해구조사업실업실업진단단위》, 《지진재해구조사업실업실업진단단위》 등 여러 명예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들의 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지난 기간 이곳 공병부대가 걸어온 자랑찬 로정을 눈앞에 그려보았다.

이러한 공병부대의 공병부대에서는 진행된 공병전문훈련과 지진구조훈련을 참관하였다.

공병전문훈련에서 부대원들은 여러가지 공병기재와 도구들을 리용하여 임시군용도로 부설과 도로수리 등 전투업무 수행모습을 보여주었다.

세계상식

도요군사재판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22일까지 도쿄에서는 군국주의 일본의 도요군사재판을 치벌하는 국제군사재판이 진행되었다.

중국의 무당사고대견축물

발고는 1612m이다. 이 산에는 고대도교건축물인 8궁, 2판, 36담당, 72암포 등이 있다.

씨미리의 보물

로제야의 크라스노야르스크 교외에는 1925년에 창설된 국립자연보호구 《스틀비》가 있다.

미군기지의 현대시설을 바래

일본 오키나와현의 나고시장이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미군기지의 현대시설을 강력히 반대해나섰다.

이날 일본과 미국정부가 이미 계획된대로 현의 기도환시에 미군기지의 현대시설을 바래

그는 일본과 미국정부가 현지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방위문제라는 명목밑에 미군기지시설물들을 자기들끼리 결정하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전략실현에 드리운 장막

미합중국본부 의장 말린도 《워윅릭스》와 그에 제공된 정보출처들은 미군병사들과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란 장거리포탄 생산 시작

이란에서 8월 29일 새로운 장거리포탄의 계절생산을 시작하였다.

새 포탄은 130mm포탄으로서 4.2km까지의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략실현에 드리운 장막

미합중국본부 의장 말린도 《워윅릭스》와 그에 제공된 정보출처들은 미군병사들과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미군기지의 현대시설을 바래

일본 오키나와현의 나고시장이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미군기지의 현대시설을 강력히 반대해나섰다.

이날 일본과 미국정부가 이미 계획된대로 현의 기도환시에 미군기지의 현대시설을 바래

그는 일본과 미국정부가 현지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방위문제라는 명목밑에 미군기지시설물들을 자기들끼리 결정하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전략실현에 드리운 장막

미합중국본부 의장 말린도 《워윅릭스》와 그에 제공된 정보출처들은 미군병사들과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란 장거리포탄 생산 시작

이란에서 8월 29일 새로운 장거리포탄의 계절생산을 시작하였다.

새 포탄은 130mm포탄으로서 4.2km까지의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략실현에 드리운 장막

미합중국본부 의장 말린도 《워윅릭스》와 그에 제공된 정보출처들은 미군병사들과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미군기지의 현대시설을 바래

일본 오키나와현의 나고시장이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미군기지의 현대시설을 강력히 반대해나렸다.

이날 일본과 미국정부가 이미 계획된대로 현의 기도환시에 미군기지의 현대시설을 바래

그는 일본과 미국정부가 현지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방위문제라는 명목밑에 미군기지시설물들을 자기들끼리 결정하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고 단죄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전략실현에 드리운 장막

미합중국본부 의장 말린도 《워윅릭스》와 그에 제공된 정보출처들은 미군병사들과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란 장거리포탄 생산 시작

이란에서 8월 29일 새로운 장거리포탄의 계절생산을 시작하였다.

새 포탄은 130mm포탄으로서 4.2km까지의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략실현에 드리운 장막

미합중국본부 의장 말린도 《워윅릭스》와 그에 제공된 정보출처들은 미군병사들과 미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